

한라시론



성 주엽
생각하는 정원

봄이 되면 피어날 꽃이나 이파리의 전 단계를 순이나 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순이나 눈은 언제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라 하지만 겨울은 나뭇잎이 조금 자란 것이 보이는 계절일 뿐, 잎이 되는 눈은 늦 여름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나뭇잎들은 언제 떨어질까요. 어린 순들이 겨울을 통해 자라고 봄기운을 받으며 활짝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장하기가 무섭게 이파리들은 빠르게 여름부터 세찬 바람들과 부딪치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의 담금질을 견뎌낸

정원 청소부가 만난 나뭇잎의 일생

이파리들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엄동설한 때서 찬바람을 만나며 추운 겨울을 만나 또 일부가 떨어집니다. 나뭇잎의 사연을 간직한 채 겨울을 넘긴 이파리들은 봄에 꽃들과 만나 화려한 짧은 시간을 보낸 후 사월과 오월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자신의 운명처럼 일생을 마감하며 나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5월이면 나무들이 대부분 작년에 데리고 있던 잎들을 대부분 떠나보내고 새잎들로 잎갈이를 마무리 합니다. 순에서 시작해서 푸른 잎새로 자라더니 어느덧 갈색으로 변하고 작게 부는 바람조차 견디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져 딱딱하게 굳어져 나뭇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무가 뜨거운 여름을 견디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운명기에 자신의 몸만으로 견뎌야 하기에 나

뭇잎으로 자신을 콘트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려는 선수처럼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몸을 최고 상황으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이파리들을 데리고 햇빛과 태풍과 맞서 견대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빛을 받아내며 소중히 키운 새싹들은 가을이 되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차가운 바람과 영하를 오가는 겨울의 기온을 만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합니다.

그토록 많은 낙엽을 떨어뜨리며 5월까지 잎갈이를 하는 이유는 더운 여름을 견디며 싸우기 위한 준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에게 힘겨운 여름과 차가운 겨울과의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봄에는 화려

한 꽃으로, 가을에는 씨앗을 위한 소산의 기쁨으로 감사와 행복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무도 사계절 속에 성장하며 회노에락을 만나게 되는 것은 사람과 같아 보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했기에 짧은 순간의 행복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들도 이파리를 통해 난관을 준비하며 자신을 조절하며 무비유한 비무환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파리가 피고 떨어지는 시간들은 나무가 한해 한해를 성장하며 준비하는 과정들이었던 것입니다. 준비가 없다면 혹독한 상처와 아픔의 시간이 남아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무는 다음해 봄을 위한 준비를 이 뜨거운 여름과의 사투를 마치자마자 다음을 준비합니다.

아침에 나와 정원정소를 하며 자연의 순리를 느끼게 됩니다.

사설

술 마시면 운전 않는 인식의 대전환 필요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아 큰 입입니다. 마치 음주운전이 고질병처럼 되고 있습니다. 처벌수위를 대폭 높였는데도 음주운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25일) 제주에서 잇따라 적발된 겁니다. 이미 경찰의 대대적인 음주단속 예고에도 속출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제주시 거로사거리와 한라수목원 인근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결과 모두 9명이 걸렸습니다. 9명 가운데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나와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0.03% 이상, 0.08% 이하로 측정돼 면허 정지가 됐습니다. 이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 면허정지는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한

들을 잡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된 '제1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06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2350건)에 비해서는 45.3%가 줄었습니다. 단 순히 숫자만 보면 크게 감소한게 맞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안다면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임을 감안하면 결코 음주운전이 줄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본인의 피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선량한 다른 가족의 행복까지 짓밟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 크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경찰의 음주단속 이전에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듭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집국 25시



이 소 진
정치부 기자
sj@halla.com

오는 7월 1일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는다. 뒤돌아 보면 쓰레기 처리난, 하수 처리난, 교통난 등 '난(亂)'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수년동안 풀이었던 현안들이 고품처럼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관련 해법과 대책 시행은 본격화된 지 오래다. 동북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제주(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 차고지 증명제, 펜터가 총량제 등 직·간접적인 차량 증가 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해당 지역 주민과 업계의 거센 반발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물론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어디있으랴만, 모두 과정의 문제다.

민선 7기 1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은 도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민사회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은 얼마나 이뤄졌는가.

제2공항 건설사업이나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등이 그렇다. 강행으로 느꼈다면 소통의 문제다. 모든 현안에 '소통 부재' '갈등 조정 능력 마름' 등의 지적이 늘 따라다니는 이유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민선7기와 함께 신설된 조직이 도지사 직속의 소통혁신정책관이지만, 이름값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형 협치를 표방했던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의회의와 상설 정책협의 회도 지난해 7월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1년째 가동 못하고 있다.

도지사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소통을 진행하고 있지만, 26일 오후 3시 기준 구독수는 2527건, 영상 1개당 조회수는 3000건을 넘지 않는다. 나머지 69만 제주도민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제2공항 현안을 놓고서 제주사회가 분열 위기를 맞고 있다. 민선 7기, 앞으로 3년 남았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하자.

뉴스-in

제주시 혈세낭비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현직 의원 총선 출마 시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후보군으로 전·현직 의원들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

26일 제11대 의회 개원 및 의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 담에서 김태석 의장은 경선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기회가 온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답변.

김경학 위원장은 "제 쓰임새를 확대시킬 노력을 하고 있다. 언제든지 부름에 응할 준비는 하고 있다"고 언급.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오류

○...제주시가 일부 지역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2-3중으로 발송했으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

제주시는 지난 14일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23만 2725건)를 발송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일련번호가 같은 고지서 3

개를 발송한 후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차량별로 1건만 납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한 시민은 "시민들이 연체하면 한산세를 부과하고 강제징수까지 하면서 불필요한 고지서 5만부를 발송한 잘못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고 있다"며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 고대모기자

출가해녀 통한 다문화 이야기

○...구좌중앙초등학교가 출가해녀의 이야기로 다문화 감수성 깨우기 교육을 진행.

구좌중앙초는 26일 전학년을 대상으로 '해녀노래' 예능보유자 강등자 해녀와 해녀노래보존회 회원을 초청해 해녀의 삶과 물질 도구, 해녀로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

학교 관계자는 "제주 해녀의 역사를 통해 우리 지역에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뿐만 아니라 공감·소통·협력 등 다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 표성준기자

그래픽 뉴스



감사의 말씀
이런 저희 아버지 강릉함공 운동 (향년 6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신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기림JK백도라지연구소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록 미국식품의약품 FDA A급 등록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한라일보가 대 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도내·친다·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 선정

제주도정 소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를 위한 해외축산물·가공품 반입금지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
교육과정 : 년과 2D그래픽 및 게임 프로그래밍

evworld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1544-8236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